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지하철 시스템 개선·버스 네트워크 재편	뉴욕
산업·경제	4	'사업 허가신청·등록서 발급 간소화' 스마트폰 앱 개발	자카르타
	6	신성장 동력 창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행	베를린
	8	초고령화사회 맞아 '미병'사업, 신산업으로 창출	가나가와
사회·복지	10	스포츠·예술·문화·여가 중심 '장애인의 달' 행사 개최	파리
	12	치료에서 취업까지 종합시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오사카
행재정·교육	15	어린이 야외활동 장려 프로그램, 市정책으로 '승화'	에든버러
환경·안전	17	소방본부, 유튜브채널 운영...구명 서포트 앱 구축	오사카
도시교통	19	공유·대여용 자전거 '주차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베를린
	22	이슬람 최대축제 기간 교통통제에 최신IT기술 활용	자카르타
	23	'이용자 안전성 확보' 자전거 도로체계 전면 재편	멜버른
도시계획·주택	26	'서민의 주거안정' 다양한 정책적 노력 소개	런던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지하철 시스템 개선·버스 네트워크 재편

‘패스트 포워드’ 계획…교통약자 배려 확대·조직운영 효율화도 도모

미국 뉴욕시 / 도시교통

- 미국 뉴욕시 교통공사(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는 대중교통의 시설 낙후, 이용률 저하,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하철 시스템 개선, 버스 네트워크 재편, 교통약자 배려 확대, 조직운영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둔 ‘패스트 포워드’(Fast Forward) 계획을 발표

- 배경
 - 미국 뉴욕시 교통공사(이하 ‘MTA’)는 만성적 적자, 이용률 하락, 정시성과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이 때문에, 2017년 7월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가 선언한 비상상황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2018년 1월 신규 임용된 MTA의 대중교통 부문(New York City Transit, 이하 ‘NYCT’) 수장 앤디 바이포드(Andy Byford)는 적극적으로 난관 타개책 모색
 - 2018년 5월 23일 바이포드는 이사회에서 패스트 포워드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날 공청회를 개최해 본격적 계획 추진에 나선

- 주요 내용
 - 패스트 포워드 계획은 크게 지하철 시스템 개선(Transform the Subway), 버스 네트워크 재편(Reimagine the Bus Network), 교통약자 배려 확대(Accelerate Accessibility), 조직운영 효율화와 인적자본 향상(Engage and Empower Employees)의 4개 부문으로 구성
 - 지하철 시스템 개선의 추진 목표는 5개
 -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CBTC: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차량과 인프라 확충
 - 정시성을 떨어뜨리는 유고 사건(incident)의 발생 원인과 패턴 분석 후 대응
 - 예방적 인프라 수선 확대 시행

- 지하철역 청결 개선과 접촉식 요금징수체계 도입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역사 환경 조성
- 가용자원을 파악하고 과업수행절차를 검토해 과업 추진속도 향상
- 버스 네트워크 재편 부문은 4개 중점과제를 제시
 - 승객 통행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한 버스 네트워크 재구축
 - 노선 개편, 정류장 설치 간격 조정 등
 - 버스전용차로·우선신호 확대와 위반차량 단속강화로 버스 통행우선권 확보
 - 친환경 버스, 이층버스, 저상급행버스 등 특수차량을 확충하고 기존 차량에 승객안전 기술 도입
 - 버스통제센터(Bus Command Center) 설치, 실시간 차량정보 제공, 데이터 분석·처리 기술 활용 등으로 버스 운행의 정시성 제고
- 교통약자 배려 확대 부문은 5개 목표를 설정
 - 교통약자 의견 대변을 위한 자문위원 초빙, 관련 단체와의 교류 확대
 - 교통약자가 접근 가능한 지하철역 확대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수립
 - 교통약자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
 - 지원과정 간소화, 스마트폰 앱 배포, 버스전용차로 이용 허용 등
 - 승강기·에스컬레이터의 실시간 운행정보 접근성 향상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시설 사용설명 배치 등으로 장애인과의 정보교류 증진
 - 지하철 플랫폼 시청각 위험 안내장치, 버스 정류장 디자인 개선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 확충
- 조직운영 효율화와 인적자본 향상 부문은 7개 목표를 바탕으로 달성하고자 함
 - 조직구조 개편, 인력채용, 배치 소요시간 단축 등으로 현장 인력수요 대응
 - 직원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
 - 조직 내 인종적·성적 다양성 포용력 확대
 - 개인, 부서, NYCT 업무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내부소통 강화, 관련부서 업무참관 등 소속감 증진 프로그램 시행
 - 직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조직운영 개선방안 모색
 - 직원 역량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 부문별 중점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제시
 - 세부과제는 크게 민첩성·확실성, 안전·보안·신뢰성, 고객서비스·소통의 3가지로 구분해 제안

- 시사점

- NYCT 수장 앤디 바이포드는 패스트 포워드 계획의 예산 규모가 방대해지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do nothing)를 선택해 미래에 더 큰 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으로 적절한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강조
 - 이는 교통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논점이라고 생각
- 다만, 계획기간 10년 동안 기존 비용을 포함하여 총 190억 달러(20조 5,670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욕주와 시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공조를 바탕으로 한 재원확보가 계획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뉴욕 교통공사(MTA) Fast Forward 계획

<p>지하철 시스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 도입 - 정시성 저해요인 패턴 분석과 대응 	<p>버스 네트워크 재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 통행패턴 분석 결과 활용해 네트워크 재구축 - 전용차로 확대와 승객안전 향상 	<p>교통약자 배려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의견수렴 창구 확대 - 교통약자 수요맞춤형 지원수단·시설 확충 	<p>조직운영 효율화·인적 역량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조 개편과 인력 충원 - 직원 역량향상과 업무환경 개선 
--	---	--	---

<https://fastforward.mta.info>

<http://web.mta.info>

<http://www.mtamovingforward.com>

<https://www.nbcnewyork.com/news/local/MTA-Subway-Signal-Plan-Lhota-Byford-NYC-Transit-483420771.html>

New York City Transit, Fast Forward: The Plan to Modernize New York City Transit, 2018.

윤규근 통신원, ggyoon89@gmail.com

산업·경제

‘사업 허가신청·등록서 발급 간소화’ 스마트폰 앱 개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산업·경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투자·원스톱통합서비스국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하나로 사업 허가 신청과 사업자등록확인서 발급과정을 간소화한 스마트폰 앱 JakEvo를 개발·출시

- 배경
 - 기존에는 사업 허가신청(SIUP)과 사업자등록확인서(TDP)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가 직접 투자·원스톱통합서비스국 등 관련 관청을 방문해야만 했으며, 처리에 평균 2~3일 정도 소요
 - 세계은행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기업하기 편한 국가’(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106위, 2017년 91위, 2018년 72위를 차지
 - 주정부는 JakEvo앱의 출시가 인도네시아의 ‘기업하기 편한 국가’ 순위를 현재 72위에서 40위 내로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주요 내용
 - 주정부 산하 투자·원스톱통합서비스국은 사업 허가신청과 등록확인서 발급과정을 간소화하는 스마트폰 앱 JakEvo를 개발
 - JakEvo는 Jakarta Evolution을 줄인 표현이며, 4월 26일 시범 출시를 거쳐 5월 7일에 정식 출시
 -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
 - 신청 후 30분~1시간 안에 사업 허가신청과 사업자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
 - 필요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업로드하고 사업장 위치를 태그한 다음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모든 신청 과정이 완료
 - 자카르타 투자·원스톱통합서비스국은 접수된 자료를 토대로 처리한 다음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결과를 발송
 - 현재 총 115종의 사업 허가신청과 확인서 발급이 가능
 - 사업 허가신청 관련 57종, 등록확인서 관련 58종

JAKEVO

Jakarta Evolution 또는 Jakevo는
사업허가와 사업자등록확인서 신청을 위한 웹사이트·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 훌륭한 기능 보유

딱 3단계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요시간

30 min

신청자가 직접 사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확인서 출력 가능

1 신청서 검색
2 양식 작성
3 이용약관 동의

JakEvo로 한걸 간편해진 신청 과정을 즐기세요.
스스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그림 1] JakEvo앱 홍보 화면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5/08/jakevo-app-to-simplify-jakarta-business-permit-issuance.html>

<http://smartcity.jakarta.go.id/blog/348/jakevo-aplikasi-untuk-kemudahan-perizinan>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5/07/mengurus-siup-dan-tdp-sekarang-bisa-daring-hanya-butuh-waktu-satu-jam>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5/07/sandiaga-jakevo-jangan-bikin-aparatur-sipil-negara-jadi-terlena-dan-santai>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신성장 동력 창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행

독일 베를린市 / 산업·경제

- 독일 베를린市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기업 소재지로서의 매력을 높일 계획임. 지식·경제·산업 기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미래의 장소’를 육성하고, 오픈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며, 주거·교통·교육·인프라를 통합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 중
- 배경
 - 베를린시는 최근 매년 5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성장하였지만, 기업 소재지로서의 매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이에 따라, 베를린시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 도시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추구하고, 관련 기반을 확충
 - 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인적자원 네트워크 투자
- 주요 내용
 - 베를린시 경제·에너지·기업청(Senatsverwaltung für Wirtschaft, Energie und Betriebe)이 베를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젝트를 운영 중
 - 1) 미래의 장소(Zukunftsorte)
 - 지식·경제·산업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거나, 앞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10개의 장소를 의미
 - 장소마다 다양한 경제, 연구, 기술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추구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받음
 - 사례: 베를린에 새롭게 조성된 대표적 산업 과학단지 아들러스 호프(Adlershof)
 - 현재까지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기금에서 약 5억 4천만 유로(6,835억 원)를 투자, 비스타 관리회사와 베를린 정부가 공동으로 산업 과학 단지를 개발·운영하고 국내외 기업과 창업자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
 - 2) 기후 보호
 - 베를린 청소업체(BSR), 교통공사(BVG), 수자원 공사(BWB)와 함께 기후 보호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업 가이드라인을 작성

- 3) 디지털화
 -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교통, 에너지, 주거 분야의 협업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 중
 - 재생에너지를 기존의 전력망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한 WindNode 프로젝트와 같은 지능형 에너지·교통 통제시스템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 4) 베를린시 오픈 데이터 포털(Open Data Portal des Landes)
 - 현대적인 오픈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
 - 가령, 자율주행차량 등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토대를 마련 중
- 5)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베를린(Netzwerk Smart City Berlin)
 - 2013년 설립된 네트워크로 주거, 교통, 교육, 인프라 분야의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함
- 6) 스마트시티 베를린을 발견하다(Discover Smart City Berlin)
 - 시민이나 방문객이 베를린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경험하고 제안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 시사점

- 베를린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스마트 기술의 구현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 즉 도시 인프라, 지식정보, 인적자원,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음

<https://www.berlin.de/sen/wirtschaft/wirtschaft/technologiezentren-zukunftsorte-smart-city/smart-city>

<https://daten.berlin.de>

<https://www.berlin-partner.de/standort-berlin/smart-city-berlin/netzwerk-smart-city-berlin>

<https://www.berlin.de/sen/wirtschaft/wirtschaft/technologiezentren-zukunftsorte-smart-city/smart-city/artikel.668949.php>

신희완 통신원, heewan.shin@gmx.de

초고령화사회 맞아 ‘미병’사업, 신산업으로 창출

일본 가나가와현 / 산업·경제

- 일본 정부의 건강의료전략특구로 지정된 가나가와현은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상태로 넘어가는 단계를 의미하는 ‘미병’(未病) 관련 사업을 신산업으로 창출하고자 하며,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미병 개선’과 ‘최첨단의료·최신기술의 추구’라는 2가지 접근법을 융합한 ‘헬스케어·뉴프론티어’ 사업을 진행

- 개요

- 2017년 2월 17일 가나가와현은 일본정부의 건강의료전략특구로 지정
- 미병은 건강과 질병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으로의 변화를 표현하는 개념
 - 미병산업은 기존의 예방·진단활동을 포함해 미병 개선으로 심신 전체상태를 최적화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건강한 삶이라는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으로 정의
 - 미병 개념을 전파해 미병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미병산업의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유효성 검증과 산업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
- 쿠로이와 유지(黒岩 祐治) 현지사는 영어에 없는 ‘미병’(Me-Byo) 개념을 2014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도 동의를 얻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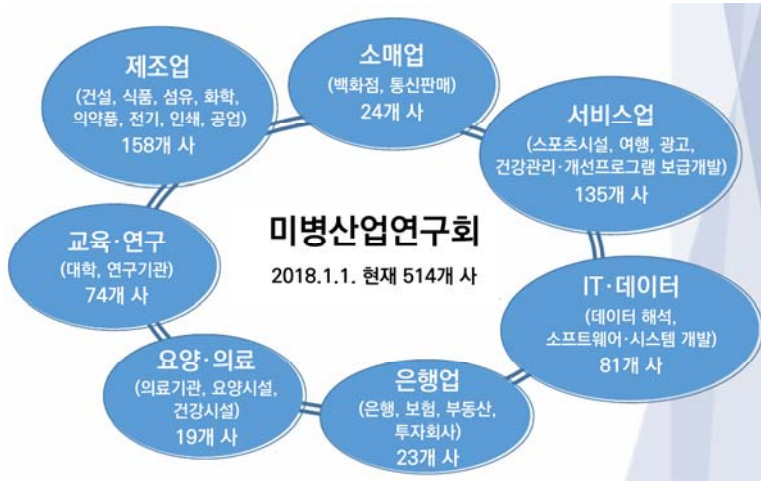


[그림 1] 미병의 개념

- 미병산업연구회

- 514개 기업이 참여하는 미병산업연구회를 구성해 새로운 미병 관련 사업을 창출
 -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일본경제의 활성화 목표와 더불어, 새로운 헬스케어 시스템을 창조하고 해외로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병산업연구회의 활동내용
 - 미병 개념을 알리고 보급하는 홍보와 브랜드전략 수립

- 미병 개선과 연관이 있는 미병산업 상품과 서비스의 데이터 축적
- 미병산업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돕는 규제개혁
- 기업의 다양한 니즈와 신기술 등의 매칭에 따른 미병산업의 혁신창출 등



[그림 2] 미병산업연구회 구성도

－ 미병 브랜드 인증제도

- 2015년 5월부터 가나가와현은 「ME-BYO BRAND」라는 인증제도를 도입
 - 인증상품·서비스와 그 광고에 「ME-BYO BRAND」 로고를 사용
 - 인증상품·서비스의 명칭에 상표 「ME-BYO」를 사용
 - 가나가와현 주관 미병산업 관련 행사에서 인증상품·서비스를 전시
 - 가나가와현은 언론발표와 홈페이지를 활용해 인증상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

<http://www.pref.kanagawa.jp/docs/mv4/cnt/f531787/#>

<http://www.pref.kanagawa.jp/docs/mv4/cnt/f536433/>

<http://www.pref.kanagawa.jp/docs/mv4/cnt/f531787/p1078097.html>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

사회·복지

스포츠·예술·문화·여가 중심 ‘장애인의 달’ 행사 개최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시민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알리고 장애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스포츠·예술·문화·여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한 달간 여는 ‘장애인의 달’ 행사를 개최
- 주요 내용
 - 장애를 ‘가시화’하고, 장애에 대해 ‘소통’하며,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
 - 파리시의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 공공·민간부문의 주체가 모두 참여
 - 매년 6월 개최되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함(올해는 6월 1일~7월 2일)
 - ‘스포츠·예술·문화·여가’라는 행사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 형식의 행사
 - 올해의 축제 제목은 ‘파리에서 뭘 할까?’(Que Faire a Paris)이며, 제목처럼 상당히 참여적이고 즐거운 축제
 - 시민 모두가 장애에 관한 즐거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장애를 ‘일상화’(banalisation,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기)하는 것이 목표
 - 비장애인 시민, 장애인 활동가, 장애인 시민 등이 모여 관련 문제를 토의하는 콘퍼런스와 토론회도 열림
 - 파리 장애인의 달 행사의 철학적 목적은 편견에 맞서 싸움으로써 많은 사람이 타자성과 차이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 공공부문의 장애인 관련 정책 실행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편견을 없애고 장애를 일상화하는 것
 - 때문에, 행사의 중심활동은 장애인이라는 ‘타자와 만나기’(se rencontrer), ‘타자와 생각을 나누기’(echanger), ‘타자를 알아가기’(se connaitre)로 구성
 - 한 달 동안 다양한 관련 행사가 연달아 개최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참여하는 연극, 댄스, 휠체어 럭비 등
 - 장애인 감독이 만든 장애문제 관련 영화상영, 콘퍼런스와 토론 등

- 장애인, 여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배제에 맞서 싸우겠다는 파리 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의 시정 철학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사
 - 서울시도 지금보다 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 행사에서 많은 것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파리지 주요 장애인 정책 6가지 개요
- 파리 장애인의 달 행사는 다음과 같은 오랜 정책적 노력이 추구하는 바가 시민사회에 문화적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일상화' 되도록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야 함
 - 1) 어린 장애인 시민과 함께하기
 - 어린 장애인 시민에게는 시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
 - 2) 장애인 시민 보조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시민이 비장애인 시민과 마찬가지로의 일상적 삶을 누리는 데 꼭 필요한 활동보조 도우미 등과 같은 서비스를 시 차원에서 지원
 - 3) 장애인 시민의 공부·교육·노동 지원
 - 기본적인 삶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부와 교육이 필수적이며, 당당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장애인 시민에게 개인교습 등의 서비스를 제공
 - 4) 장애인 시민에게 교통수단 제공
 -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파리지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
 - 5) 장애인 시민의 외출·휴가·여가 보조
 - 장애인 시민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의식주 외의 여가를 즐기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적 정책을 시행
 - 6) 장애인 시민의 주거문제 해결 지원
 - 장애인 시민에게 필요한 특수시설을 갖춘 주거환경 구축을 다방면으로 지원

<https://www.paris.fr/handicap>

<https://www.paris.fr/actualites/le-mois-parisien-du-handicap-sport-art-et-culture-au-rendez-vous-5829>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치료에서 취업까지 종합시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일본 오사카市 / 사회·복지

- 일본 오사카市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치료교육이나 취업상담 등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엘름오사카’(エルムおおさか)를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 아동 치료교육,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발달노트 작성·배포, 각종 정보제공 등 종합적 시책 시행으로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지원

- 배경: 후생노동성의 발달장애인 지역지원체계 확립 요청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정비
 - 각 도도부현·지정도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일관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보건소·보육원 등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모에게 조언해줄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
 -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후속 경과 평가도구 도입을 촉진하는 연수회 시행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칭찬·훈육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가족대응력을 향상
 - 발달장애인이 집단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익히는 트레이닝 지원
 - 의료기관과의 연계, 기타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는 발달장애인 지원매니저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배치해 지역지원 기능 강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추진
 - 각 도도부현·지정도시에 설치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취업지원, 정보제공 등을 시행
 - 아동의 심리 진료 네트워크 사업
 - 아동 심리문제, 아동학대, 발달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도도부현의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각 의료기관이나 보건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 재해 시의 아동심리 지원체계를 구축

- 오사카시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엘름오사카’ 운영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치료교육이나 취업 등에 관한 각종 상담 제공

- 오사카시 발달장애인 지원 맵
 - 오사카시에 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
 - 발달장애인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0~6세, 6~18세, 18세 이상의 3단계로 나누어 소개
- 발달장애아동 치료교육지원 DVD
 - ‘엘름오사카’는 발달장애의 전반적 특징, 발달장애 아동 치료교육 사례 등을 담은 DVD ‘발달장애 아동의 전반적 이해와 지원: 취학 전’을 1장 300엔 (2,900원, 송료 포함)에 제공
- 발달장애아동 전문 치료교육기관 사업
 - 발달장애의 전반적 특성을 고려한 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일상 자립과 단체 생활 적응을 목표로 일상생활의 힘을 기르는 개별 치료교육 시행
 - 아동 치료교육: 2주마다 1회 개별 시행이 원칙으로, 보호자도 매회 치료교육에 참가
 - 보호자 연수: 월 1회 시행이 원칙
 - 대상자는 오사카시의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전반적 발달장애(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증, 아스퍼거 장애 포함) 판정을 받은 아동과 그 보호자
-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 사업 주체는 오사카시 장애인 취업·생활지원 센터
 - 대상자는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 중 일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대상
 - 발달장애 전문상담원이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의 상담 요청에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
 - 취업 후에도 근무처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발달노트
 - 발달노트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오해나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발달장애인과 주변인의 교류를 도움
 - 배부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엘름오사카’의 면담에서 발달장애 증상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 오사카시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중 배부를 희망하는 사람

- 정보공개
 - 발달장애 전문의료기관 중 정보공개를 승낙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
 - 재해 시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 정보·지원센터는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대처법은 물론,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내용에 관한 정보와 리플릿 제공
 - ‘커뮤니케이션 보드’는 말이 아닌 일러스트를 이용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수단으로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의 의사소통에 활용
 - 발달장애인이 구어로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어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배려
 - 커뮤니케이션 보드는 모든 지하철역과 교통수단(버스·지하철 등), 종합안내소, 공원관리사무소 등에 설치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hougaishahukushi/hattatsu/gaiyo.html

<http://www.city.osaka.lg.jp/fukushi/page/0000043881.html>

<https://www.elmosaka.org>

https://www.elmosaka.org/map_dir/pages/support.htm

<https://www.elmosaka.org/old/index.files/pdf/map3.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행재정·교육

어린이 야외활동 장려 프로그램, 市정책으로 ‘승화’

영국 에든버러市 / 행재정·교육

- 영국 에든버러市는 지난해 여름 민간기관 ‘플레이잉 아웃’(Playing Out)의 어린이 야외활동 장려 프로그램이자 골목길 놀이환경 조성 운동인 ‘플레이잉 아웃’을 시내 54개 구역에서 시범시행함. 플레이잉 아웃의 공청회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이를 시의 공식 정책으로 승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 개요

- 어린이들이 집 앞의 작은 도로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
 - 주택가 소규모 도로의 차량운행을 2시간 정도 통제해 그 시간 동안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동네 친구와 놀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 플레이잉 아웃 운영자가 지역주민·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협조를 구함
 - 지역 학부모와 주민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프로그램 홍보와 협조요청
 - SNS를 활용해 플레이잉 아웃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매뉴얼, 운영시간, 협조사항 등을 안내
 - 시의회와 여러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
 - ‘의회가 골목길 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은?’(Street Play, how can councils support it?)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자체의 지원 방법, 정보, 가이드라인, 사례 등을 제공



[그림 1] 플레이잉 아웃 프로그램의 골목길 놀이 장면

- 골목길 놀이 기회 제공과 지역 커뮤니티 회복 등의 효과 기대
 - 어린이에게는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기회를 제공
 - 골목길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순기능(골목길 안전 향상, 지역 커뮤니티 연결 등) 회복

- 주요 내용

- 시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2017년 4~8월 시범사업 시행
 - 54개의 플레이 아웃 세션을 허가해 30곳의 골목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 시정부가 시범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홍보, 운영, 차량 통제, 안내물 제작, 가로막 설치 등)을 감당
- 시민공청회 결과 상당히 긍정적
 - 2017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시범사업 결과회의와 시민참여 공청회를 개최했고,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 기회 제공(90%)
 - 어린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게 됨(83%)
 - 어린이의 지역 소속감을 높일 수 있게 함(88%)
 -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커뮤니티 소통을 늘림(90%)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정책으로 승화하는 방안을 추진
 - 시정부는 지난 5월 17일 교통환경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플레이 아웃의 취지가 시의 어린이 활동과 도시환경 증진 정책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

http://www.edinburgh.gov.uk/news/article/2486/its_playtime_in_edinburgh_street_closures_pilot_set_to_become_policy

<http://playingout.net>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환경·안전

소방본부, 유튜브채널 운영…구명 서포트 앱 구축

일본 오사카市 / 환경·안전

- 일본 오사카市 소방본부는 시민의 소방행정 이해와 친밀감 향상을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편, 응급조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망설임 없이 응급 조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명 서포트 앱'을 구축

- 유튜브 채널 운영
 - 오사카시 소방본부는 2018년 4월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
 - 각종 이벤트나 훈련 모습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시민의 소방행정 이해와 친밀감 향상을 도모
 - 소방본부는 유튜브에서 소방행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전송할 때,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운영방침을 정함
 - 정보전송 목적, 운영 규칙, 저작권, 면책사항, 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등
 - 정보전송 목적은 기존 매체인 홈페이지나 종이 매체에 유튜브 채널을 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소방행정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유튜브 채널에는 소방본부의 각종 이벤트나 훈련 결과, 화재 예방 등에 관한 소식, 운영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제공
 - 현재 유튜브 채널에는 화재 예방에 관한 소식 외에 입욕사고 예방, 오사카 구급안심센터 정보, 가정 내 전도사고, 열사병 예방 등에 관한 정보가 게재
 - 운영 규칙
 - 유튜브 채널에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에 한해 정보를 게재
 -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코멘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구체적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
 - 운영책임자는 이용자가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제3자 비방, 영리 목적,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 코멘트나 동영상 등을 두고하는 때는 예고 없이 해당 코멘트나 동영상을 삭제

- 구명 서포트 앱 구축

- 응급조치 교육을 받았어도 그 방법을 잊어버리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응급조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망설임 없이 응급조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명 서포트 앱’을 제작
 - 눈앞에 쓰러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임을 강조
- 앱은 한번 설치하면 통신 환경과 관계없이 무료로 동영상 시청할 수 있음
 -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알기 쉬운 동영상으로 안내
 - 앱을 열면 바로 응급조치 영상을 볼 수 있음
 - 심장 마사지 간격(분당 110회)을 영상과 음성으로 안내
 - 성인, 어린아이, 유아에 적합한 응급조치를 선택할 수 있음

<http://www.city.osaka.lg.jp/shobo/page/0000430930.html>

<https://www.youtube.com/channel/UCAzSx8VnSkmBhv9R7ra50hg>

<http://www.city.osaka.lg.jp/shobo/page/0000431992.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도시교통

공유·대여용 자전거 ‘주차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독일 베를린시 / 도시교통

- 적극적인 자전거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 베를린시는 공유·대여용 자전거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각 행정구역이 통일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각각 운영해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31일 공유·대여용 자전거의 표준화된 주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 배경
 - 베를린시는 적극적인 자전거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공유·대여용 자전거 사업은 직접 투자를 할 정도로 중점을 두는 정책
 - 2016년 자전거주민투표단체(Volksentscheid Fahrrad)의 본격적인 활동에 힘입어 최근까지 자전거 친화정책을 적극 시행 중
 - 시의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공유자전거 사업을 시행 중인 넥스트바이크(Nextbike)는 올해 말까지 약 700개의 자전거 주차장과 약 5,500대의 공유 자전거를 베를린에 배치할 예정
 - 그 외에도 8개의 공유·대여용 자전거 민간업체가 베를린 전역에 약 17,000대의 자전거를 배치
 - 최근 공유·대여용 자전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별도의 거치대나 주차장 등을 이용하지 않고 공공장소 어디에나 세워도 된다는 점
 - 하지만, 공유·대여용 자전거가 늘어날수록 공공장소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자전거가 보행자와 보행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증가
 - 이에 따라, 시정부는 공유·대여용 자전거 주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행정구역이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1) 관련법에 따라 보행로는 폭 1.6m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거리 포함 최소 2.3m를 보장할 것
 -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상점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는 2.3m 이상의 추가 보행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2) 자전거 반납구역과 수집장소가 필요한 공유·대여용 자전거 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함
 - 특별허가 없이 함께 주차가 가능한 자전거 대수는 4대
- 3-a) 공유·대여용 자전거 주차 시 주의사항
 - 건물, 지하철역 출입구, 엘리베이터 출입을 막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됨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을 막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됨
 - 1) 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행로를 막거나 좁혀서는 안 됨
 - 교차로 보행섬, 소방차·응급차 출입구역, 경찰서, 쓰레기 수집차량·도로정비차량을 위한 도로 공간을 막거나 차지해서는 안 됨
 - 도시설계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민감한 구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3-b)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 자전거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는 민간 공유·대여용 자전거를 공공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해서는 안 됨
 - 공유·대여용 자전거 공급업체는 잘못 주차된 자전거나 고장 난 자전거를 24시간 안에 해결해야 함
 - 공유·대여용 자전거 공급업체는 고객과 시 담당자에게 관련 문제를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고, 48시간 안에 이메일로 답변을 해야 함
-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행정구역이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
 - 이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베를린 미테(Mitte) 지역구는 공유·대여용 자전거에 번호를 기입해 사용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
 - 템펠호프-쾨네베르크(Tempelhof-Schöneberg) 지역구는 담당 공무원 2명을 새로 고용해 방치된 공유·대여용 자전거를 조사하고 공급업체에 알림
 - 또한, 7개의 자전거 주차구역 신설을 검토 중

- 의의

- 공유·대여용 자전거 사업이 양적인 확장을 하는 동안, 해당 공급업체는 도시환경의 질 하락을 방치하고 있었음
- 시정부는 늘어나는 불만사항을 파악해 새로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지역이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처방안을 세워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

<https://gesetz.volksentscheid-fahrrad.de>

<https://www.tagesspiegel.de/berlin/5000-neue-leihfahrraeder-fuer-berlin-die-bahn-ist-raus-call-another-bike/13733488.html>

<https://www.tagesspiegel.de/berlin/sharing-dienste-in-berlin-mit-gebuehren-gegen-leihraeder/21253502.html>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14337341/Tempelhof-Schoeneberg-weitet-Leihfahrrad-Kontrollen-aus.html>

신희완 통신원, heewan.shin@gmx.de

이슬람 최대축제 기간 교통통제에 최신IT기술 활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도시교통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광역교통국(BPTJ)은 이슬람 최대 축제일인 르바란(Lebaran, 이슬람 설날)을 맞이하여 급증하는 자카르타 광역권 내 귀성차량의 교통통제에 드론, 영상통화, 구글 정보 서비스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

-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의 최대축제인 르바란 기간 중 귀성(Mudik) 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로 곳곳에서 교통정체 발생 예상
 - 전국적으로 850만 대의 이륜차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 639만 대에서 33%가량 증가한 수치
 - 사륜차도 전년도 319만 대에서 약 17% 증가한 372만 대가 귀성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
 - 반면, 총인구의 7% 수준인 약 2,000만 명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성
 - 르바란 축제기간 중 최우선 교통과제는 주요 간선도로 교통정체 지점의 신속한 포착
 - 현재 자카르타 방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총 22대의 감시카메라(CCTV)로는 축제기간 중 급증하는 귀성차량의 통제에 불충분
 - 자카르타 경찰국과 교통국이 운영 중인 교통통제시스템(ATCS: Area Traffic Control System)에 드론, 영상통화, 구글 정보 서비스 등을 결합
 - 기존 시스템보다 더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가능
 - 르바란 축제일(6월 14~15일) 1주일 전인 6월 7일부터 적용 개시
 - 주요 병목지점 확인 시 현장 인력을 재배치하여 차량통제에 신속하게 투입
 - 심한 차량정체가 예상되는 자카르타-치캄팩 간 고속도로의 휴게소 KM19 지점은 집중관리 대상이며, 축제기간 중 별도의 규제가 추가될 수 있음

<http://megapolitan.kompas.com/read/2018/05/31/20264461/bptj-akan-gunakan-drone-untuk-dukung-kelancaran-mudik-di-jabodetabek>

<http://ekonomi.kompas.com/read/2018/06/02/140242826/85-juta-unit-sepeda-motor-bakal-digunakan-mudik-lebaran-tahun-ini>

<http://industri.bisnis.com/read/20180601/98/801937/bptj-pakai-drone-antisipasi-macet-mudik-lebaran>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이용자 안전성 확보’ 자전거 도로체계 전면 재편

호주 멜버른市 / 도시교통

- 2050년까지 자전거 이용률을 50% 늘릴 계획인 호주 멜버른市는 자전거 이용률 증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이용자의 ‘안전성’임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할 전략으로 자전거 도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안을 제안해 시민의견을 수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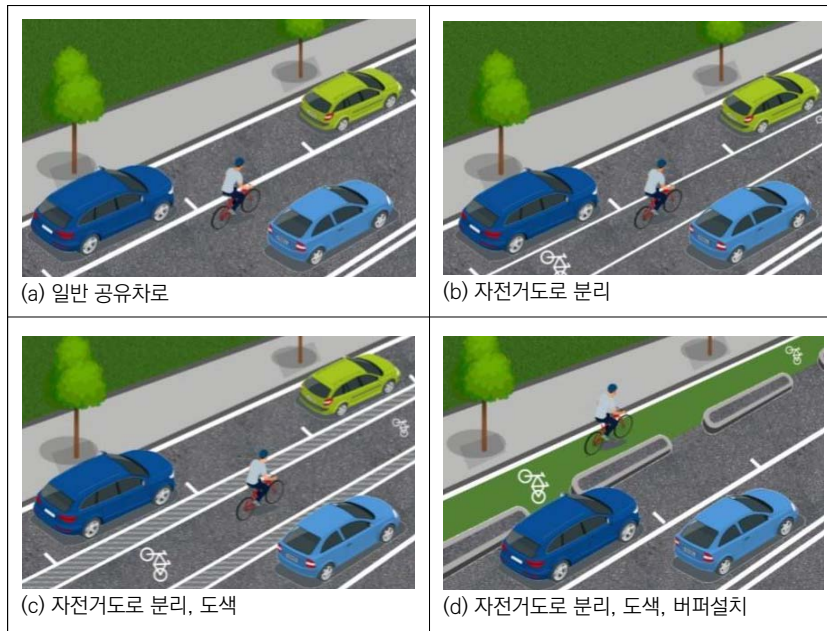
- 배경
 - 자전거 이용은 이용자 개인과 도시환경에 많은 긍정적 영향
 - 이용자에게는 건강 증진과 교통비 감소 효과
 - 도시환경에는 환경오염, 소음, 교통정체 감소와 대중교통 수용능력 확대 효과
 - 자전거 통근자 증가는 도시경제에도 큰 혜택을 제공
 - 2017년 기준 자전거 통근자는 12,000명 이상이며, 이는 멜버른시의 가장 큰 트램 57대의 최대수용능력과 맞먹는 수치
 - 트램 1대의 구입·운영 비용은 1,370만 호주달러(113억 원)
 - 자전거 기반시설에 1호주달러(820원) 투자 시 1.3~14달러(1,070~11,500 원)의 효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자전거는 도로의 절반도 안 되는 폭을 차지하므로, 버스보다 1.6배 이상, 승용차보다 3배 이상 많은 통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과 이용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온 멜버른시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자전거 이용률을 50% 늘리겠다는 목표를 수립
 - 2050년까지 시의 교통체계 재편 가이드라인이 될 ‘멜버른 교통전략 2050’에서 보행과 자전거를 핵심 대안으로 설정

- 자전거 이용률 제고 전략
 -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률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
 - 자전거 이용률을 제한하는 4가지 주요요인을 발굴
 -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다른 교통수단과의 갈등과 이해관계 상충, 자전거도로 끊김,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직장 내 기반시설(보관시설, 샤워실 등) 부족
 - 시정부는 4가지 요인 중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전략을 수립
 - 2009~2014년 자전거 추돌사고는 50% 감소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안전 걱정이 자전거 이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 또한, 시정부는 현재 자전거 통근자가 대부분 청장년층 남성임에 주목하고, 여성·노인·청년 계층의 자전거 통근율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

- 자전거 도로체계 개편안

- 지금까지의 자전거 이용 안전성 제고 정책은 주로 법적 접근법을 활용
 - 자전거에 도로 공유권 부여, 차량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도로 문화 정립, 자전거와 차량 간 간격 법제화 등
 - 이러한 조치들은 자전거 추돌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함
-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자전거 도로체계를 도입하는 접근법을 채택
 - 해외사례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주행로와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전거 도로체계를 도입할 계획
- 자전거도로를 시각적으로 구별하고 버퍼(Buffer)를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안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가장 큰 안전감 제공을 확인
 - 주행로와 교차로 모두에 [그림 1]의 (d)와 같은 방식이 공통적으로 유효



[그림 1] 멜버른시 자전거 도로체계 개편안

- 의견수렴

- 시는 새로운 자전거 도로체계 확립을 포함한 여러 정책제언을 온라인 시민 게시판에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중
 - 정책제언에는 자전거 개선 프로그램의 재정투자 확대, 자전거 주차장 확충, 도심 내 차량 감소, 전기 자전거 이용 촉진 등이 포함
 - 특히, 전기 자전거 보급은 노인 계층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샤워시설 제공이 어려운 직장에 근무하는 이들에게도 적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 시는 2018년 중으로 시민 의견수렴을 종료하여 교통전략의 초안을 수립하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시의회에 승인을 받을 계획

<http://www.melbourne.vic.gov.au/news-and-media/Pages/Cycling-key-to-unlocking-congestion-.aspx>

<https://participate.melbourne.vic.gov.au/transportstrategy/cycling>

https://participate.melbourne.vic.gov.au/application/files/4315/2765/9474/Transport_Strategy_refresh_-_Bicycles_for_Everyday_Transport_Discussion_Paper.PDF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도시계획·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다양한 정책적 노력 소개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런던市는 사디크 칸(Sadiq Khan) 시장이 부임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런던의 비싼 주거비가 유발한 주거안정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
- 개요
 - 런던시는 2016년부터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말로 부담가능한 주택’(Genuinely Affordable Homes) 공급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
 -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알기 쉽게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
 - 주요 내용은 연도별 주거안정 정책의 요약과 FAQ
 - FAQ는 주택정책 일반(General), 주택임대(Renting), 주택구매(Buying)로 구분
 - 런던 주택전략(London Housing Strategy)을 포함한 관련 정책과 계획의 링크를 제공
- 주요 내용
 - 사디크 칸 시장이 부임한 2016년의 런던 주택시장 상황과 주거안정 노력
 - 런던 주택공급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전혀 없었고, 부담가능한 주택은 13%에 불과
 - 시정부는 그해 말 31억 5천만 파운드(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고, 2021년까지 9만 호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계획을 밝힘
 - 주택 공급유형은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 지분공유주택(Shared Ownership), 생활형임대주택(London Living Rent)의 3가지로 구성
 - 2017년 런던시의 주거안정 노력은 다음과 같음
 - 런던 베커넘(Beckenham) 지역에 생활형임대주택을 처음으로 공급
 - 런던 주택전략과 런던 도시계획의 초안을 설정

-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새로 공급되는 주택 전체 물량의 50%를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만드는 것
- o 또한, 임차인의 권리와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나쁜 건물주 확인’(Rogue Landlord Checker)프로그램을 시작
-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중개인의 주택관련 범죄사실 여부를 알 수 있게 함
- 2018년의 런던시와 사디크 칸 시장의 노력은 다음과 같음
 - o 칸 시장은 추가로 17억 파운드(2조 4,500억 원)의 재정을 확보해 2022년까지 26,000호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힘
 - o 2017~2018년에 착공한 부담가능한 주택은 총 12,526호이며, 이 가운데 2,826호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 o 새로운 공영주택 건설 프로그램(Building Council Homes for Londoners)을 시작해 앞으로 4년간 1만 개의 새로운 공영주택을 건설할 예정
- 2019년 이후에도 정말로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런던시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런던 주거안정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
- 주택정책 관련 FAQ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했고, 홈페이지에 자세한 답변과 링크를 올림

[표 1] 런던 주택정책 관련 FAQ 주요 질문

주택정책 일반	주택임대	주택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 시장은 런던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런던 내 빈집에 대한 대응책은? · 집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안정 정책은? · 부담가능한 주택의 정의는? · 공영주택을 더 공급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협회(Housing Association)의 정의와 역할은 무엇인가? · 런던 생활형임대주택(London Living Rent)의 정의는? · 민간 임차인을 위한 칸 시장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임차인이 집주인의 주택관련 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 불량 집주인 고발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소유방식 중 프리홀드(Freehold)와 리스홀드(Leasehold)의 의미는 무엇인가? · 주택 자가소유를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지분공유(Shared Ownership)의 의미는 무엇인가?

- 이 외에도 런던 전역과 각 자치구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현황, 임시거처에 거주 중인 어린이의 수, 런던 도시계획상 연간 평균 주택공급량 정보 등을 제공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building-a-london-for-everyone>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increasing-housing-supply/building-council-homes-londoners>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